# 부동층, 도내 야권단일화 승부 열쇠

## 조사결과 전국 46.6%
## 야권 경쟁 치열해질수록
## 도내 부동층들은 늘어나
## 양당 표심잡기 나설 듯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전북 정치지형도의 변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 표심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이번 총선의 사실상 야권단일화 승부의 열쇠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임의걸기(RDD)를 통한 전화면접조사 한 결과, '총선이 내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나'라는 질문에, '결정하지 못했다'는 답은 무려 43.2%나 됐다.

'투표할 후보가 없다'(3.4%)는 답까지 포함할 경우 부동층은 과반에 육박하는 46.6%에 이르는 셈이다.

야권 승패 열쇠를 쥐고 있는 전북 민심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전북의 부동층은 야권 간 다툼이 치열해질수록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

18대 대선을 돌이켜보면 당시 새정치 바람을 일으킨 안철수 돌풍은 대단했다.

대선을 2달여 앞둔 2012년 10월 당시 문재인과 안철수 간 후보단일화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확연히 앞서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당시 11~12일 양일간 전국 1,500명을 자동응답전화조사(가구전화 RDD 80%+휴대전화 RDD 20%) 방식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지지율의 경우 안철수 40.3% 〉 문재인 30.6% 〉 박근혜 11.0%를 각각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북의 부동층은 11.4%였다.

야권단일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전북은 안철수 50.0% 〉 문재인 36.4%로 '안'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전북의 부동층은 13.6%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앞선 2~5일까지 전국 성인 3천명을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실시한 '주간정례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1.8%p)에선 전북은 안철수 46.8% 〉 문재인 30.3% 〉 박근혜 10.2%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 전북 부동층은 6.0%였다.

불과 7~9일 사이 전북의 부동층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그렇다면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 같은 부동층 확대는 양측 간 공방전이 늘어날수록 증가했다.

당시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무소속 국정운영 불가론을 제기하자 안 후보가 "가능하다"고 맞받아친데 이어 안철수 캠프 측은 민주통합당 정당후보론에 대해 "어처구니없다"고 공격했다.

이에 문 후보가 "아유, 정말 그렇게 험한 말을…"이라고 답하며 양 진영의 긴장이 고조됐다.

이 같은 공방전이 진행되자 전북 부동층은 6.0%→4.0%→11.4%로 급증했다.

안철수 측이 민주통합당의 정당정치론을 강하게 부정하자 전북의 정통적 야권 지지층에서 불안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중도 포지션에 있는 안철수 측이 민주통합당과 극한 갈등관계에 빠지면 야권성향의 지지층이 등을 돌릴 수 있다는 또 다른 딜레마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전북 민심의 향배가 구체화되지 않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 당간의 부동층 표심잡기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고민형 기자

## "김제역 부용 이전 수서발 SRT 증차 호남고속철 정차"

### 김종회 예비후보 KTX 신역사 문제 해결책 제시

국민의당 김종회 제20대 김제, 부안(예정·사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현 김제역을 김제 부용으로 이전하고, 수서발 SRT로 증차된 호남선 고속철도를 정차시키겠다고 밝혀 'KTX 신역사' 문제를 풀 해법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현 호남선 KTX 익산역은 전라북도 북부를 포괄하기엔 지형적으로 너무 북쪽으로 치우친 데다가 구도심에 위치하여 진입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민간자본유치 실패로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으며, 토지·건물 시세가 높아 차후 역세권이 발전해도 대대적인 개발이 어렵다"라며 "이로 인해 전북도의회, 김제시의회, 완주군의회, 도내 지역구 의원들 사이에서 김제 부용역 근처에 새로운 호남선 KTX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김제 백구 부용은 원래 접근성, 경제성, 효율성, 향후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호남선KTX 역사로 가장 적합하다고 평가받던 곳이다. 부용은 전주-군산, 익산-정읍을 연결하는 T자 벨트의 중심으로 호남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전주-군산 간 고속화도로, 익산-김제간 자동차 전용 도로가 연결되어 도내 5개 시군(김제, 익산, 전주, 군산, 완주)의 140만명의 도민들이 고속철도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 KTX 익산역 위치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을 활용해 넓은 주차장과 타 지역 시외·고속버스와 연계되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을 수 있다. 차후 역세권이 발달된다면 컨벤션센터 등 종합개발을 통해 전북경제공동체의 거점지로 활용 가능한 지역이다. 인접한 새만금 국제공항과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해 육해공 3대 인프라를 갖춘 전북 교통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 30억 명이 고속철도로 연결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를 고려한다면 KTX 신역사 유치는 새만금, 전북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라며 새만금 시대의 백년대계를 제시했다.

이어 "현 익산역은 전라선 등 역사로만 사용하고, 호남선 KTX를 분리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김제역을 김제 부용으로 이전하여, KTX가 일단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충분한 수요가 있는 만큼 차후에 역세권을 개발해나가면서 운행을 증편하면 된다"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내 핸드폰에 "XXX 후보 응대 부탁드립니다" 메시지

## 눈살 찌푸리게 하는 지지 문자 살포

### 해당 후보자측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낸 듯" 해명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후보들을 지지해달라는 문자가 살포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긴급 부탁드립니다'라는 머리말로 발송된 메시지는 "현재 ###당에서 경선 후보평가 여론조사와 별도로 일반전화(면접원조사방식)로 지역실사를 하고 있으니 ### 후보에 대해 적극적인 응대 부탁드립니다"라고 적혀있다.

해당 정당은 지난 17~19일 중앙당 관계자들이 지역구를 내려와 실사를 거쳤다.

이번 실사에서는 후보경쟁력, 경쟁당 동향, 선거구도, 민심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사된 내용은 지난 21일 중앙당 공천관리위원들에게 보고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발송된 문자는 실사 이후인 지난 22~23일 집중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후보 측은 지지 문자와 관계없다고 강조했다.

후보 측 관계자는 "구두로 도와달라고 말할수는 있을지언정 문자를 통해 지지해달라고 한 적은 없다"며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보낸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와관련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60조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자동정보통신을 이용한 대량 문자가 아니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원도 아닌 일반인들에게 무차별 살포됐다는 점과 여론조사가 민심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다는데 신경을 자극하고 있다.

특히 컷오프 등 해당 정당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후보에게 유리한 조사 결과가 나오게 하려다 보니 정치적 냉소만 부추기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해당 정당의 정밀면접심사를 앞두고 이러한 문자가 발송된 듯 싶다"며 "이러한 문자는 소위 '선거공해'로 볼수 있다. 후보자들 역시 여론조사 결과에 자신의 거취 결정을 기대려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닌 소신과 원칙에 따른 정치적 행보가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신광영 기자

## 저 총선 출마합니다

### 이기동 예비후보 "시민공약실명제 실시할 것"

국민의당 이기동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완산갑·사진)는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공약실명제'를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시민존중 민생투어' 활동 중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유권자들의 생생한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는 생활밀착형 공약을 마련하고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생활정치를 표방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공약을 수렴하여 선거사무실 정책공약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후보공약으로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최형재 예비후보, 박근혜정부 유신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최형재 예비후보(전주완산을·사진)은 테러방지라는 미명속에 드리워진 박근혜정부의 유신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최 후보는 "박근혜정부의 심각한 인권의식의 부재와 일방적인 국가운영으로 70년대 유신의 망령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번 4.13총선은 정부여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정권교체의 틀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한 야당이 될 수 있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신광영 기자

### 박종덕 예비후보, 더민주 후보간 토론 개최 제안

더불어민주당 박종덕 예비후보(전주완산을·사진)는 최인규, 최형재, 이상직 등 같은 소속 정당 후보들간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책대결선거를 선도하고 유권자들에게는 후보자간 정책비교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는 주장이다.

특히 모바일경선제도가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걸러내는 민주적인 공천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후보자 간 정책토론회가 도입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신광영 기자

### 김호서 예비후보, 내일 선거사무소 개소

국민의당 김호서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 완산을·사진)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웨스트빌 2층(효자로 161)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에는 천정배 공동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유성엽 국회의원, 김관영 도당위원장, 정균환 전 국회의원 등 많은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및 지지자들이 참석한다.

김 예비후보는 "개혁정치의 실현을 위해 야권의 혁신과 호남민주정신 부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성은순 예비후보 "송천변전소 확정 주민 협의를"

더불어민주당 성은순 예비후보(전주덕진·사진)는 25일 "한전이 옛 송천역사 부지에 설치할 예정인 154kv급 송천변전소 확정사업은 밀실이합이다"며 "송천변전소 부지 재선정을 위해 송천동 주민들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예비후보는 "변전소가 많은 위험성이 내포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현 송천역 폐역사 변전소 부지 선정을 백지화하고, 위치변경을 위한 협의를 한국전력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광영 기자

### 양현섭 예비후보, 호성동 농촌마을 방문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덕진·사진)는 25일 호성동 신중하오 농촌마을 미나리작업장 등 곳곳을 누비며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신중하오마을에서 미나리작업장을 운영하는 정모씨(77)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대해 좀 더 유연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에, 양 후보는 "예전에 알지 못 한 지역주민들의 애환과 고통을 이렇게 현장방문을 통해 하나하나 알고 또 해결방안에 같이 모색하게 된 것이 큰기쁨"이라면서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광영 기자

### 국민의당 도당 "더민주 친노 칼춤에 전전긍긍"

국민의당 전북도당(이하 전북도당)은 더불어민주당 컷오프를 두고 "친노 칼춤에 전전긍긍하는 전북정치"라고 꼬집었다.

전북도당은 25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개별통보한 '20% 컷오프'에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초선 전정희 의원이 포함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가 외견상으로는 2선으로 후퇴했으나, 실질적으로 친노의 '보이지 않는 손'이 막후에서 당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전정희 의원의 희생은 '친노와 거리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어 "전북정치, 자존심 회복이 필요하다"며 "8명의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은 1차 칼날을 피했지만, 3선 이상 50%, 초·재선 30%라는 2차 컷오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전북청치는 언제까지 변방에 머무르며, 친노의 눈치를 볼 것인가"라며 반문했다. /신광영 기자

### 신임 장석조 전북도선관위원장 선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제42대 위원장에 장석조(54·사진) 전주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

신임 장석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깨끗하게 관리해 선거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광영기자

### 더민주 안호영 예비후보, 산악관광 정책 발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예비후보(사진)는 25일 오전 11시 장수군청에서 정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산악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 '완진무장 산악힐링관광 정책'을 발표했다.

안호영 후보는 "인구고령화 및 경제구조의 변화로 산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휴양, 체험, 자연치유 등으로 다양화 됨에 따라 산악관광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하고, "내륙권 산악지역의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산악관광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특히, 진안고원의 무진장 지역은 산지비율이 최고 80%에 달하고, 해발고도가 500m 이상인 산악관광의 최적지이다."며 "산악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주민들이 서비스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되고,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상권이 살아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호영 후보는 산악관광 인프라 조성을 위한 동서횡단철도와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을 역설하며, 한옥문화체험과 산악관광을 연계한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등 전북지역 산악관광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무주=전문선기자

###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연 사업 추진할 것"

강팔문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강 후보·사진)는 최근 "위기 상황에 빠진 익산을 반드시 구해 마지막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강팔문 예비후보는 "시장에 당선되면 지연되고 있는 각종 현안 사업들을 챙기고 추진할 것이"며, "각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과감하게 반영해 시정운영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배병옥 익산시장 예비후보 출마 공식화

배병옥 익산시장 예비후보(이하 배 후보·사진)는 최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배 후보는 그동안 왜곡된 형태로 굳어져왔던 지방정치와 행정의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익산을 기분 좋게 변화시키고자 먹거리자본 등 5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박종열 도의원 예비후보, 100원 콜택시 공약 발표

국민의당 박종열 도의원 예비후보(이하 박 후보·사진)가 25일 '슈퍼맨 100원 콜택시'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박 후보는 "슈퍼맨 100원 콜택시란 대중교통이 진입이 어렵고 거주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도보로 30분씩 걸리는 지역에 콜택시 제도를 마련하여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고 발표했다.

박 후보는 "슈퍼맨 100원 콜택시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는 오지마을 어르신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